

#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존경하여야 합니다

부인은 남편을, 남편은 부인을,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며, 피를 썩게하는 마음입니다.

못마땅한 마음, 혈기 부리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사랑의 마음과 희생적인 자세로 살면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됩니다.



구세주 조희성님

영생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지 영생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믿는 마음과 성경 상의 믿음은 전혀 다릅니다. 구세주라야 믿음도 주고 믿는 마음도 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엡 2: 8)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선물로 줄 수 있고, 영생의 신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영생밖에 없으므로 우리들에게 선물로 영생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지 영생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사람들은 통상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믿음을 뜻하는 잘못된 말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가면 믿는 마음이 깊어질 줄은 모르나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마음과 믿음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도록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세주가 나와야 믿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구세주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므로 영생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구세주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구세주라야 믿음도 주고 믿는 마음도 주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영원무궁토록 살게 하는 영생의 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구세주는 사람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선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구세주는 이슬성신을 부여하여 만민들로 하여금 영생하게 합니다. 이슬성신은 감추었던 만나요, 감로입니다. 감로 이슬성신이 믿음입니다. 믿는

마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구세주가 가지고 있는 감로 이슬성신이 믿음입니다.

구세주 자체가 완전한 믿음이므로 초초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바라보는 것은 생명의과일을 먹는 것입니다. 초초로 바라볼 때에 생명의과일을 먹게 되어 있고, 생명의과일을 먹어야 영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눈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고 귀로도 먹을 수 있고, 몸으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열반경에서는 피부에 있는 숨구멍으로 감로 이슬성신이 들어간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상말에도 죄는 미워해도 사랑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영이므로 죄를 짓는 자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사랑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상말에도 죄는 미워해도 사랑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도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남편이든 부인이든 하나님처럼 여겨야 합니다. 자기 자식이라고 개처럼 맘대로 부려 먹어도 안 됩니다. 자식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존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자식도 지극히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하나

님처럼 여기고 하나님처럼 섬겨야 합니다.

자식이라도 하나님처럼 사랑해 주면 제단에 안 따라 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랑자 자식이라도 진실로 사랑해 주면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해 주면 말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해 주고, 자나깨나 열려해 주고 그러면 그 자식이 효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자식이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행한대로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인과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과법칙은 진리입니다. 행한대로 돌아옵니다.

못마땅한 마음, 혈기 부리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희생적으로 살고, 사랑을 베푸는 자세로 사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는 길이며 죄를 짓지 않는 길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적을 만들면 안 됩니다. 적이라는것은 미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으면 적이 절대로 안 생깁니다. 어느 사람한테든지 희생적으로 살고, 사랑을 베푸는 자세로 사는 것이 온당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이 생기기 때문에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미워하기 때문에 해방을 놓습니다.

더군다나 승리제단 나오는 사람은 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밭다고 때리면 차라리 뽕을 한대 맞고 그 마음을 푸는 것이 낫습니다. 때렸다고 눈을 흘기고 미워하면 영원한 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못마땅한 마음, 혈기 부리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혈기 부리는 마음을 한번 내

면 구세주가 그 죄를 3년 동안 씻어야 합니다. 3년 동안 씻어야 벗겨집니다. 신경질 내도 안 됩니다. 자기 자식이라도 망치고 신경질 내면 안 됩니다. 신경질을 내도 안되고, 화를 내도 안되고, 욕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도 내놓아도 흥과 티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미워할 줄도 모르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줄도 모르고, 원수를 만들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희생적인 사람의 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대 맞으면 맞았지, 그 사람을 때리는 법이 없습니다. 맞았다고 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곳에 왔으니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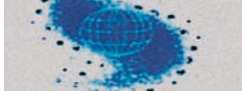
실사 우리 제단을 해친 사람일지라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피가 썩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 사람을 사랑해 주고, 그 사람을 위해 희생적인 생활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 사람이 출옥한 뒤에 제단을 해친 사람에 대하여 고소를 하지도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도입니다. 내 갈길만 가면 되지 다른 사람 갈 길을 간섭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가 없습니다.

영성할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승리제단 식구는 어디에도 내놓아도 흥과 티가 없어야 됩니다. 어딘가 남과 다르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항상 모범이 되는 생활, 희생적인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 조희성님의 발자취



# 영생의 길은 나를 미워하는 길

나 라는 것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죄가 된다

영생의 길은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가 되어야 가는 길이다. 약삭빠르게 머리를 굴러가지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다. 마치 굼벵이가 변하여 매미가 되는 과정과 같다. 굼벵이는 7년에서 10년 정도 애벌레로 기어 다니다가 꼬투리 속에서 한동안 꼼짝 않고 가사 상태로 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꼬투리 속에서 매미로 변신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며 이슬을 먹고 노래를 부르며 살게 된다.

사람도 죄인의 탈을 쓴 상태가 굼벵이와 같다고 비유할 수 있다. 매미와 같은 하나님이 되려면 일정기간 인간의 탈을 벗는 변화를 꾀하여 탈바꿈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옛 사람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라고 해서 나의 몸을 묶어 놓고 죽이라는 것이 아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 '나라는 자존심'을 푼다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완전히 바보가 된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덤덤한 가사(假死)상태에서 일정 기간이 흘러가야 하늘의 사람, 의인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맞

대로 살게 되면, 과거의 죄인이 더욱 강하여져 변화가 오지 않는다. '나라는 의식'이 괴롭고 고통을 주며, 사랑에 이르게 하는 마귀이자 죄의 본체가 되므로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살아가는 변화가 오지 않는 것이다.

### 인간의 감정 자체가 죄

놀랍게도 인간의 감정 자체가 죄인 것이다. 그래서 영모님도 나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나무와 같이 감정이 없어지기 위해서 나라는 것을 죽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나'라는 것이 힘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선까지는 내가 애를 쓰고 기를 쓰는 과정을 밟아 올라가야 한다. 그렇게 하다보면 내가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마귀를 죽여주시고 자유를 법을 대신 지켜 주시는 단계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해당하는 좋은 사례가 있다. "기도를 하라"는 해와주님의 말씀에 따라 밤새도록 기도를 하였다. 그 다음 날 "왜 기도를 하나도 안 했



나무와 같이 감정이 없는 존재가 되어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

느냐"고 야단을 치시며 지적을 하시지는 것이었다. 그때 이 사람이 "발잡도 하지 않고 밤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게 되면 '이유 변명'이 된다. 왜 밤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하나도 안 했다고 하실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보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인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무조건 기도를 안 했다고만 하시니 누가 이 길을 가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다.

### 내(마귀)가 하는 것이 다 죄

아무리 애를 쓰고 기를 써도 어김없이 기도를 하나도 안 했다고 계속 떨어지는 고로 그 심정과 입장은 꺾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잘못될 리는 만무하고, 도대체 그 까닭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인간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이었다. 그렇게 애를 쓰고 기를 쓰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다. 내가 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길을 찾을 수 없는 고로, 나는 포기를 해버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였던 것이다.

그제야 바라보이시는 영모님께서 '그래, 바로 그거야!' 하시는 듯 삼글삼글 웃으시는 것이었다. 그래서야 퍼뜩 '나'라는 것이 기도를 해도 죄가 되고, '나'라는 것이 하나님께 맡겨도 죄가 되고, '나'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어도 죄가 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다. 그런 다음날 해와 주님께서 "어제는 조금 기도를 했구나!"라고 인정을 해주셨던 것이다.

이와 같이 마음으로 자유율법을 지켜 나가기 위해 애를 쓰고 기를 쓰게 되니, 그때부터 하늘의 영적 비밀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가 열리고 의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나'라는 것이 하나님께 전체를 맡기면 마귀가 맡겼다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신다. 또한 그것 자체가 죄가 된다. 상달된 기도란 하나님이 오셔서 맡겨주시고 맡긴 것을 또 맡겨주시고, 이 맡긴 것을 또 맡겨달라는 마음 상태를 가져야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나 용어는 아마 이 세상 종교가 많이 있었어도 처음 들어 보는 말일 것이다.\*

### 참고:

불교에서 "기왓을 아무리 간다고 해도 거울이 될 수는 없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의 뜻은 나라는 의식이 도를 갈고 닦아도 절대로 부처님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그 '나'를 죽여야 부처님이 되는 것이다.